

신사참배 문제와 평양의 미션스쿨 폐교과정에 대한 역사적 재고찰 - 북장로교 삼숭(三崇) 학교를 중심으로

김명배 (숭실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조선선교부의 초기 대응
 1.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와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의 대응
 2. 실행위원회의 신사참배 거부와 맥륜의 교장직 인가 취소
- III. 신사참배문제를 둘러싼 선교부와 조선인들의 갈등
 1. 조선인들의 입장: 학교폐쇄 거부와 경영권 인계 요구
 2. 선교부의 입장: 학교폐쇄와 교육사업 철수
- IV. 삼숭(三崇) 후계경영문제의 대두와 조선인들 사이의 갈등
 1. 삼숭 후계경영촉진회와 인계 청원서(請願書) 작성
 2. 합동경영론과 분리경영론의 대립
 3. 한인보와 이춘섭의 인계경영안
- V. 삼숭(三崇)의 폐교와 조선인들의 대응
 1. 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의 학교폐교 결정
 2. 학교폐교에 대한 조선인들의 대응
- VI. 나가는 말

• ABSTRACT •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Shrine Worship and the Process of
Closing Mission Schools in Pyongyang: Focusing on Soongsil College,
Soongsil School, and Soongui Girls' School of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Author Kim, Myoungbae (Associate Prof, Soongsil University)

To date, numerous writings and papers have been published on the issue of shrine worship, and a considerable amount of academic achievements on shrine worship have been accumula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o far,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issue of refusal of shrine worship and withdrawal of educational projects by three schools in Pyongyang, namely Soongsil College, Soongsil School, and Soongui Girls' School.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of missionaries and Koreans that emerged during the closure of the three schools, and the conflict between Koreans related to School Closure. To this end, in Chapter 2, this paper will first look at existing studies on the shrine worship and the Choseon Mission's initial response. Second, in Chapter 3, we will examine the differences in positions between missionaries and Koreans regarding the issue of shrine worship. Third, we will look at the emergence of management succession issues in the three schools and the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Koreans.

Key words: Shrine Worship, School Closure, Soongsil College, Choseon Mission Station, Choseon Government-General

I. 들어가는 말

1910년 8월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제 당국은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국에 신사를 설치하고 관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참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계명이 우상을 엄격히 금함으로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1919년 9월 초대 총독 테라우지 마사다케에게 진정서를 보내 신사참배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총독부는 한일합방 후 얼마 되지 않아 선교사들과의 원만한 우호관계를 위하여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¹⁾ 1920년 대에도 일제 당국은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강요하지 않았고 서구국가, 특히 기독교 측의 입장을 배려하여 신사예식과 관련된 갈등을 피해하려고 했다. 1925년 조선신궁을 남산에 설치하고 진좌제(鎭座際)를 할 때도 참가를 강요하였으나 한국인들의 냉담한 태도로 1920년대 후반까지 소극적인 신사참배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²⁾

그러나 1930년대 일본 본토에서 상황이 급변하면서 식민지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31년 9월 중국군이 봉천(奉天) 북부의 유조호(柳條湖) 근방에서 만주철도선을 폭파했다는 구실로 일본이 군사행동을 개시하여 만주를 점령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진출을 모색하던 일제 당국은 국민정신 총동원을 구실로 식민지 조선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만주사변을 거치면서 득세한 군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체명징운동’(國體明徵運動)이 일어났다.³⁾ 이때부터 식민

1) 이치만, “1930년대 이후 내한 미국선교사의 교육사업 철수에 관한 소고: 미북장로회 조선선교부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39집(2016), 271; 김승태 편역, 『일제 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1910-1945)』(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71-172. “기독교 학교 학생으로서 천황 예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의식에 참가하여 폐하의 사진 앞에 경례를 시키려는 명령에 대해서는 일제 이에 반대하고자 한다.”

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서울: 기독교문사, 1991), 288.

3) 이치만, “1930년대 이후 내한 미국선교사의 교육사업 철수에 관한 소고: 미북장로회 조선선교부를 중심으로,” 272. 이 국체명징운동은 천황은 국가 그 자체이며 국가의

지 조선에 천황 이데올로기 주입과 정신적 통일을 위해 각종 행사 때마다 교육계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2.26 사건>(1936년)을 통해 젊은 군부 강경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은 급속히 군국주의 화하였고, 신사참배 문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 당국과 기독교계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특히 일제는 신사참배 강요를 통해 기독교계 학교를 식민지교육체계에 편입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교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은 기독교계 학교를 공립학교나 친일적인 인물이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⁴⁾

지금까지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저술들과 논문들이 발표되어 신사참배와 관한 학술적 연구는 상당 부분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이다.⁵⁾ 그래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아직 학술적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평양 삼숭(三崇)학교⁶⁾의 폐교과정에서 나타난 선교사들과 평양지역 조선인들의 입장, 학교인계경영과 관련된 평양 조선

국체(國體)임으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충성을 해야 한다는 군국주의 사상 운동이다.

- 4) 김승태, 『식민권력과 종교』(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2), 69-79.
- 5) 대표적인 저술로는 김양선의 『韓國基督教史研究』(서울:基督教文社, 1971), 이성전의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서울: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07), 안종철의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김승태의 『식민권력과 종교』(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2) 등이 있다. 자료집으로는 김승태 편역의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1910-1945)』(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과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편찬한 『평양숭실대학 역사자료집 Ⅲ』(서울: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편찬한 『신사참배 영문자료집 I, Ⅱ』(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과 이만열 위음, 『신사참배 영문자료집, Ⅲ』(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등이 있다. 이 밖에 논문으로는 이치만의 “1930년대 이후 내한 미국선교사의 교육사업 철수에 대한 소고:미북장로회 조선선교부를 중심으로”, 『선교와신학』 39집(2016)와 박혜진의 “서울지역 북장로교선교부의 교육선교 철수 과정과 한국인들의 반응”(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 88호, 2009.9.5.) 등이 있다.
- 6) 평양의 삼숭학교는 숭실전문학교, 숭실학교, 숭의여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러 자료와 저술 그리고 논문에서 숭실전문학교는 숭실전문 혹은 숭전, 숭실학교는 숭실중학 혹은 숭실중학교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의 통일성을 위해 숭실전문학교, 숭실학교, 숭의여학교로 통일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인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선교사들의 편지, 선교부 자료 그리고 당시 신문자료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2장에서 일제 신사참배 강요와 조선선교부의 초기 대응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신사참배 문제를 둘러싼 선교사와 조선인과의 입장의 차이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삼성의 후계경영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된 조선인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삼성폐교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역할과 조선인들의 대응을 다루고자 한다. 올해로 숭실대학교는 개교 127주년과 폐교 96년, 그리고 서울 숭실 재건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본 논문을 통해 신사참배 문제와 숭실의 폐교와 관련하여 선교사들과 평양의 조선인, 그리고 조선인들 사이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입장과의 차이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II.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조선선교부의 초기 대응

1.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와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의 대응

일본 본토의 정국변화는 곧바로 식민지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다. 1935년 4월 우가키 가스시케(이하 우가키) 총독은 각급학교 책임자들에게 훈령을 통해 국체명징(國體明徵)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것과, 이에 의심을 품는 자들은 엄중하게 계도할 것을 지시하였다.⁷⁾ 1935년 4월 초 평남지사에 부임한 야스다케 다다오(이하 야스다케)는 한 개면에 한 개 신사(一面一社)를 목표로 국민정신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⁸⁾

7) 朝鮮總督府訓令 第 14號, 『朝鮮總督府官報』, 1935년 4월 16일자.

8) 이지만, “1930년대 이후 내한 미국선교사의 교육사업 철수에 관한 소고: 미북장로회 조선선교부를 중심으로,” 273.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의 분위기가 강경해지기 시작하자, 북장로회 조선선교부는 평양에서 1935년 7월 2-4일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안건으로 신사참배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조선선교부는 총독부 학무국과 신사참배 문제를 논의하도록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권을 위임하였다.⁹⁾ 실행위원회의 대표로 제임스 홀드크로프트(James G. Holdcroft, 許大展), 위원으로는 스탠리 솔타우(T. Stanley Soltau, 蘇悅道)와 해리 로즈(Harry A. Rhodes, 盧解理)가 선출되었다. 이들은 모두 신사참배를 강경히 반대하는 선교부 내 다수파를 대변하는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총독부와 선교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¹⁰⁾

이런 상황에서 평남지사 야스다케는 1935년 11월 14일 도내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회의를 소집하였다. 야스다케 지사는 학무과장을 통해 참석 교장들에게 평양신사에 참배한 후 회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때 회의에 참석하 온 숭실(崇實)학교 교장 맥쿤(G. S. McCune, 尹山濶), 숭의(崇義)여학교 교장 스누크(Miss V. N. Snook, 鮮于梨)의 대리인 정익성(鄭益成), 안식교 의명(義明)학교 교장 리(H. M. Lee, 李希滿) 등 기독교계 학교 교장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¹¹⁾ 이 사건을 계기로 평남지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장들을 따로 불러 교장 자신뿐 아니라 학생들의 신사참배 여부를 서면으로 1935년 12월 20일까지 회답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교장의 파면은 물론 폐교까지 불사하겠다고 위협하였다.¹²⁾ 일제가 이렇게 강경책을 쓴 이유는 1933년 일본이 국제연

9) Holdcroft to C. B. McAfee, 1935년 7월 4일(RG 140-12-14),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 문제 영문자료집 II』, 13-14;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61.

10) "Statement Concerning Our Attitude toward patriotic Ceremonies, Resolutions Passed by Chosen Mission," July 1935,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I』, 32.

11) 『東亞日報』 1935년 11월 24일자.

맹에서 탈퇴함으로써 굳이 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국체명징을 강조하며 군국주의화하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일제는 선교사와 한국교회의 분열을 획책하여 선교사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기독교계 학교를 식민지교육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함이었다.¹²⁾

한편, 맥쿤으로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전해 들은 숭실학교 이사장 마펫(S. A. Moffet, 馬布三悅)은 이 사실을 실행위원회 대표 홀드크로프트에게 전했다. 홀드크로프트는 평남지사 야스다케에게 11월 16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실행위원회는 우가키 총독에게 11월 25일 서신으로 진정서를 보내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⁴⁾ 이 서신에서 실행위원회는 1936년 6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와 조선장로교 총회, 그리고 9월의 미국 해외선교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지방 관리들이 기독교학교나 교장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 것과 미국 해외선교부의 대표가 내한하여 신사참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1936년 10월까지 회답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⁵⁾

그러나 평남지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는 애국심과 충성심을 표하는 것으로서 국민교육상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국민교육의 입장에서 국가가 명하는 바에 복종할 것”¹⁶⁾을 요구하면서 신사참배 가부(可否)의 회답을 시급히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급해진 상황 속에서 실행위원회의 홀드크로프트와 로즈는 맥쿤과 린튼 그리고 커닝

12) Letter from G. S. McCune to McAfee,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I』, 45-49.

13) 김승태, 『식민권력과 종교』, 75-76.

14) Holdcroft to Ugaki, 1935년 11월 25일; 김승택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기독교편(1910-1945)』, 193.

15) 위의 책, 194.

16) Yasutake to Holdcroft(1935년 12월 2일자); 위의 책, 195-196.

선교사와 함께 1935년 12월 9일 총독부 학무국장 와타나베를 방문하여 진정과 양해를 구하였다. 그러나 와타나베는 “학교경영과 교회경영은 구분해야 하며”¹⁷⁾ 신사참배는 “제국의 정신적 기초”라는 당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¹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행위원회는 1935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회의를 통해 숭실학교와 승의여학교의 신사참배 문제를 토론했고, 그 결과를 평남지사에게 전달하도록 맥쿤에게 권고하였다. 실행위원회는 이 권고안에서 신사참배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일본제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 권고안은 “개인이나 학교장이 황실과 천황에 대해 애국적 방식으로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다”¹⁹⁾고 피력하였다. 맥쿤은 1935년 12월 13일 평남지사에게 이 사실을 서신으로 통보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은 양심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경배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²⁰⁾고 재차 강조하였다. 실행위원장 홀드크로프트도 같은 날 총독부 학무국장 와타나베에게 서신으로 “신사참배에 종교적 요소가 있어 학교장들에게 참배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²¹⁾는 사실과 “신사참배 가부(可否)에 대한 회답을 조선선교부, 조선장로회 총회, 해외선교부 회의가 끝나는 1936년 9월 이후까지 연기해 달라”²²⁾고 재차 요청하였다.

17) 『毎日申報』 1935년 12월 10일자.

18) 『京城日報』 1935년 12월 9일자.

19)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presbyterian Mission, Seoul” (December 9-13, 1935),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I』, 37-38; 김승택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기독교편(1910-1945)』, 196-197.

20) 김승택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기독교편(1910-1945)』, 198.

21) 위의 책, 199-202.

22) 위의 책, 199-202.

2. 실행위원회의 신사참배 거부와 맥쿤의 교장직 인가 취소

실행위원회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당국의 태도는 완강하였다. 1935년 12월 30일 총독부와 실행위원회 측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당국은 여전히 신사참배가 국가의례임을 강조하며, 총독부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하였다.²³⁾ 그리고 다음 날 총독부 학무국장은 맥쿤에게 “신사참배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²⁴⁾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1936년이 되자 평남지사 야스다케는 1월 14일 맥쿤과 학교의 설립자 마펏을 도청으로 초청하여 신사참배에 대한 최종 입장을 1월 18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맥쿤과 마펏은 신사참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평양 선교사회와 숭실전문학교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학교 전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거나, 대표자가 신사에 참배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기로 하고, 그 일은 교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답서를 제출하기 전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인 평양신학교 박형룡 교수와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와 협의한 결과 이들이 “신사참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맥쿤과 실행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로 하였다.²⁵⁾

맥쿤은 1936년 1월 18일 오후 두 시 마펏과 함께 평남도청을 방문하여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담은 문서를 평남지사에게 제출했다. 맥쿤은 이 문서에서 “신사참배 거부의사”와 “학교 이사회가 자신의 교장직 사표를 반

23) “Notes on Conference of Dec. 30th, 1935,”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I』, 51-52.

24) “A Warning to Dr. G. S. McCune, Principal of the Sujitsu School on Dec. 31, 1935,”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I』, 73.

25)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서울: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7), 490;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70.

려했음”²⁶⁾을 통보하였다. 이에 평남지사는 방문 당일인 1월 18일 맥쿤의 숭실학교 교장직 인가를 즉시 취소했고, 1월 20일에는 총독부가 숭실전문학교 교장직의 인가도 취소했다.²⁷⁾ 일제 당국으로부터 맥쿤의 교장직 인가취소를 받은 실행위원회는 미국 해외선교부에 신사참배와 학교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다시 강력히 요구하였다.²⁸⁾

맥쿤이 교장직이 인가 취소되자, 평양 삼교의 후임교장에 조선인 교장 설이 총독부에 의해 대두되었다. 총독부는 고분고분한 조선인들에게 학교경영을 맡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신사참배를 할 교장 내지는 사무대리인을 세우라고 독촉하였고, 만일 시간을 끌면 학교의 지정인가부터 취소하겠다고 압박하였다.²⁹⁾ 따라서 이때 숭실재단 설립자 마펫과 이사회는 조선인 교장을 임명하라는 총독부의 압력과 학교경영을 인계하라는 조선인들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절충안으로 교장은 서양인 선교사가, 부교장은 조선인이 맡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³⁰⁾

결국 숭실재단 이사회는 1936년 2월 26일 총독부 학무국에 각 학교 교장 후임자의 선임계획을 보고하고, 3월 4일에 숭실전문학교 교장에 엘리 모우리(Eli M. Mowry, 牟義理), 부교장에 농과과장인 이훈구(李勳九), 3월 5일에 숭실중학교 교장에 정두현(鄭斗鉉), 명예교장에 모우리, 3월 12일에는 승의여학교 교장에 김승섭(金承涉)을 임명했다.³¹⁾

26) McCune to Yasutake, 1936년 1월 18일,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I』, 74-75.

27)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494; 『基督新報』 1936년 1월 22일자.

28) 안중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71.

29) 『朝鮮中央日報』 1936년 2월 19일자.

30)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28일,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 161-162; 『朝鮮中央日報』 1936년 3월 2일자.

31)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494; 『東亞日

III. 신사참배문제를 둘러싼 선교부와 조선인의 갈등

1. 조선인들의 입장: 학교폐쇄 거부와 경영권 인계 요구

일제당국의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이 완고함을 인지한 실행위원회는 1935년 12월부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맥쿤은 해외선교부에 보낸 서신에서 ‘신도의 종교성’을 언급하며 복장로교계 학교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 시작하였다.³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36년 2월 초 평남도청은 송실전문학교 졸업생들은 정부기관에 취업을 불허할 것이며, 송실학교 졸업생들은 졸업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다. 평남도청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자, 송실재단 설립자 마펏 선교사는 평남 학무국장에게 신입생들은 받지 않을 것이며, 재학생들이 졸업하면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고 강력히 응수했다.³³⁾ 이때부터 선교사들과 조선인들 사이에 신사참배문제는 학교 폐쇄와 경영권 인계문제로 변질되었다.

송실재단 설립자 마펏이 학교폐쇄와 교육사업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자, 삼승학교의 교수회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2월 17일 송실전문학교 교수와 송실학교 교사들은 송실재단 설립자 마펏과 전 교장 맥쿤에게 학교 장래문제에 대하여 질문서를 제출하고 회답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마펏과 맥쿤은 송실전문학교와 송실학교는 성경학교(聖經學校)로 경영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교수회는 이것이 선교회의 입장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입장인지를 재차 질문하였다. 평양지역 재향군

報」 1936년 3월 7일자.

32) McCune to Cleand B. McAfee, 1935년 12월 20일,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 45-49;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68.

33)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76.

인회 회장도 이 문제를 질의하고자 마펏을 방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마펏과 맥쿤은 19일 아침까지 대답하겠다고 하고, 블레어(Blair, 방위량)와 함께 당일 오전 특급열차 편으로 서울로 떠났다.³⁴⁾ 이에 송실전문학교 교수회는 2월 18일 학교경영자인 마펏에게 세 가지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첫째, “교수회는 송실전문학교와 운명을 같이 함”, 둘째,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학교를 영구히 존속시킬 것”, 셋째, “경영자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조선인 측에 양도해 줄 것” 등이었다. 교수회의 이 결의는 신사참배를 용인함은 물론 조선인에게 학교경영권을 양도해 달라는 것이었다.³⁵⁾ 다음 날인 19일 오전 10시에 송실전문학교 학생 다수가 대강당에 모여 교수들과 동일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두 명의 학생대표를 서울에 있는 마펏에게 파견했다. 송실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사들이 유사한 결의를 하였다.³⁶⁾

한편, 평양에 있는 송실학교와 송실전문학교 교우유지(校友有志) 50여 명도 2월 20일 오후 8시 송실전문학교 대강당에서 재평양교우회유지자대회(在平壤校友會有志者會)를 개최하고 송실전문학교 교수회가 표명한 결의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선교부와 접촉하여 학교의 존속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김취성, 박재복, 조응천, 오응천, 홍재윤 등 5인을 선임하였다.³⁷⁾ 5인 위원은 21일 서울로 상경하여 홀드크로프트 자택에서 마펏과 맥쿤, 그리고 이사들을 만나 교수회와 학생들의 진의(眞義)는 학교를 사랑함으로 한 일이지 경영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이사회도 우리의 생명 같은 송실학원을 폐쇄할 수 없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학교 폐문을 막겠다고 하였다.³⁸⁾

34) 위의 책, 76; 『基督新報』 1936년 2월 26일자.

35) 『朝鮮中央日報』 1936년 2월 19일자.

36) 『基督申報』 1936년 2월 26일자.

37) 『朝鮮中央日報』 1936년 2월 22일자.

이처럼 실행위원회와 숭실재단의 설립자 마펫과 맥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학교폐쇄와 교육사업 철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처음부터 숭실전문학교와 숭실학교의 교수회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폐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성명을 제출하고, 선교사들에게 입장을 질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평양의 교우유지회와 조선인들은 숭실전문학교와 숭실학교의 교수회와 학생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학교폐쇄를 반대하였다. 나아가 선교사들이 학교폐쇄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학교경영권을 인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평양의 조선인들이 학교폐쇄 반대와 학교경영권의 인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빈약한 조선의 교육계를 볼 때 삼성의 폐교는 너무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숭실전문학교와 숭실학교의 학생들도 신사참배와 같은 종교적인 문제보다 졸업 후 진로의 문제가 더욱더 현실적인 문제였기에 학교폐쇄와 교육철수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2. 선교부의 입장: 학교폐쇄와 교육사업 철수

실행위원회는 평양의 조선인들이 교육철수에 반대하자, 해외선교부가 입장을 조속히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실행위원회는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와 조선인들의 학교폐쇄 반대입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해외선교부가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 결정을 속히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³⁹⁾ 실행위원회가 학교폐쇄와 교육사업 철수를 요청해오자, 해외선교부는 1936년 4월 초 신사참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단’(commision)을 파견할 것이며, 가능한 학교폐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편지를 보

38) 『朝鮮中央日報』 1936년 2월 24일자.

39) Holdcroft to C. B. McAfee, 1936년 3월 1일,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I』, 101-104.

났다.⁴⁰⁾

해외선교부는 1936년 중순 필리핀과 중국 산둥에서 각각 선교하는 제임스 로저스(James B. Rodgers)와 폴 애보트(Paul R. Abbott)를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선에 파견했다. 두 조사위원은 조선선교부와 조선인 그리고 총독부 관료들을 폭넓게 접촉하였다. 그들은 총독부 관료들과 접촉하면서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군부와 경찰이 매우 강경하고 상대적으로 총독부 학무국의 입장은 다소 유화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위원은 결국 일본군부의 강력한 압력으로 총독부가 신사참배를 모든 학교에 대해 강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두 조사위원은 신사참배가 종교적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다수의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동조하였으나, 조선인들은 학교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⁴¹⁾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조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936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에서 조선선교부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 총독부 경무국은 연례회의가 ‘종교적 집회’가 아닌 ‘정치적 집회’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개최를 불허하였다. 결국 실행위원회 위원장 홀드크로프트와 로즈는 서대문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사참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야 연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⁴²⁾ 연례회의는 1936년 7월 1일 서울선교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철수 ‘권고안’(Emergency Education Policy)을 69대 16의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40) McAfee to Soltau, 1936년 4월 1일,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I』, 117-118.

41) “Report of the Board’s Commission to Chosen Regarding the Shrine Question”,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 영문자료집 II』, 141-148;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80.

42)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16일,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 158;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81.

1. 미션스쿨을 유지하여 창립의 정신을 굳게 유지하는 것에 동반하는 어려움의 증대를 인식하여 조선선교부는 세속교육의 영역으로부터 철수정책을 승인한다. 이것을 순서대로 이루어 나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중략) 총독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2. 게다가 선교부는 시간과 방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실행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광고한다. (1) 실행위원회와 관계 있는 선교지부는 서로 상의한다. (2) 실행위원회는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사항을 선교부에 보고한다. (중략) (3) 선교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실행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매뉴얼의 필요조건에 따라 선교본부에 맡긴다.⁴³⁾

교육철수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조선선교부는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한다는 것과 철수에 시간이 걸림으로 총독부와 “긴밀히 협조”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선교부는 실행위원회에 교육철수의 “시간과 방법”을 위탁한다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는 (1) 실행위원회와 선교지부가 협의할 것, (2) 실행위원회가 선교부에 결정사항을 보고한다. 다만 15일 내에 선교지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확정되고, 항의가 있으면 연례회의가 투표를 하든지 또는 실행위원회가 결정할 것, (3) 해외선교부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 선교부의 매뉴얼(Mannual)에 따를 것 등이었다.⁴⁴⁾

조선선교부의 교육철수 권고안은 미국에서 파견된 두 조사위원인 로저

43) Educational Policy of the Chose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As decided July, 1936);이성진,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 250쪽 재인용

44)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16일,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 242-243; 안중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82-83. 그런데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의 교육철수 결정 과정에서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는 제외되었다. 이는 H. H. 언더우드를 비롯한 교육선교사들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철수를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고등교육기관은 북장로교회 선교회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와 캐나다 선교회 그리고 호주 장로회 선교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스와 애보트의 동의로 미국의 해외선교부에 보내졌다.⁴⁵⁾ 미국 해외선교부는 그해 9월 21일자로 조선선교부의 교육철수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학교처분 문제를 조선선교부와 협력하겠다고 결정했다.⁴⁶⁾ 그러므로 해외선교부는 1936년 중순 무렵까지 조선선교부의 학교폐쇄와 교육사업 철수 결정을 받아들였음은 물론 학교경영을 조선인들에게 양도하는 안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⁷⁾

IV. 삼숭(三崇) 후계경영문제의 대두와 조선인들 사이의 갈등

1. 삼숭 후계경영촉진회와 인계 청원서(請願書) 작성

1936년 가을 일제는 다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이에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는 강경하게 반발하였다. 실행위원회는 1936년 7월 1일 조선선교부 연례회의가 결정한 교육철수 권고안대로 학교를 폐쇄하고자 하였다. 평양 선교지부와 평양노회도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평양노회는 1936년 10월 7일 신사참배 인사들에 대한 징계와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에 이사 파송을 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⁴⁸⁾

그러나 조선인들은 평양선교지부와 평양노회의 입장과 달리 평양의 유서 깊은 학교들을 폐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1936년 12월 10일 블레어 집에서, 솔타우, 로즈, 그리고 클라크 등 선교사와 세 학교의 조선인 이사 김동원, 정두현, 고한규와 송실전문학교 부교장 이훈구 등이 모여 극비리에 학교후계경영 문제에 대해 중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선교사들

45) 이성진,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 251.

46) "Board Action of September 21, 1936,"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I』, 149-151;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84.

47)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85.

48) 위의 책, 116.

은 일단 조선인들의 학교후계경영 요구에 양해를 해주고, 대신 12월 20일까지 후계경영자가 안 나타나면 이듬해 신입생 모집을 중지함은 물론 학무당국에 폐교수속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이에 조선인 이사들은 후계 경영자를 찾고 있으니 학교를 조금히 폐교치 말 것을 선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하였다.⁴⁹⁾

아울러 학교의 후계경영자를 찾기 위해 평양의 유지들은 학교운영진과 협의하여 ‘송실전문학교, 송실학교, 송의여학교 3개교 후계경영촉진회’를 결성하고, 학교의 이사진 중 고한규, 정두현, 김동원을 인계위원으로 임명하고 사무를 일임하였다.⁵⁰⁾ 또한 평양의 유지인 조만식, 오윤선 등도 인계위원들과 더불어 재력가들을 접촉하여 후계경영을 모색하였다.⁵¹⁾

그런데 처음부터 학교후계경영문제와 관련하여 세 학교를 나누어 경영하는 안이 대두되었다. 즉, 송실학교는 정두현, 송의여학교는 김동원이 후계경영을 위해 교섭하고, 상당한 재원이 드는 송실전문학교는 조만식, 오윤선, 고한규 등이 후계경영을 교섭한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송실전문학교 교장 모의리는 송실전문학교의 후계경영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이 선교회 또는 본국의 유지들로부터 경영에 대한 위탁을 맡아 개인 자격으로 경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⁵²⁾ 그래서 김동원은 세 학교의 후계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후계경영 하도록 하여야지요. 한 사람의 힘으로 부족하거든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라도 하여야지요. 송실, 송의 등 두 학교는 후계경영이 그리 힘들지는 안치마는 전문학교만은 좀 힘이

49) 「毎日申報」 1936년 12월 12일자.

50) 「基督申報」 1937년 2월 4일자.

51) 「基督申報」 1937년 2월 10일자.

52) 「毎日申報」 1936년 12월 16일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방침을 변경해야 가면서라도 학교만은 지속 식혀야지요. 1개 재단으로 3개교를 전부 경영하게 되겠는지 또는 2개 이상의 재단을 편성하여 가지고 분리경영을 하게 되겠는지 이는 아직 미정으로 제2단 공작에 속하는 문제입니다.⁵³⁾

그리하여 1936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선교사 측 솔타우와 로즈, 학교관계자 조만식, 고한규, 오윤선, 김동원 등은 블레어 선교사 집에 모여 제2차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선인 학교관계자들은 선교사들에게 인계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관한 연구와 교섭이 필요함으로 조급히 폐교신청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하였고, 선교사 측도 이에 대해 양해를 하였다.⁵⁴⁾ 한편, 조선인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솔타우와 로즈는 1937년 1월 초 해외선교부에 숭실전문학교와 숭실학교를 조선인들에게 인계하는 세 가지의 청원안(請願案)을 보냈다. 첫째 현재의 교사 운동장 소유토지 제반설비 등 모든 시설을 그대로 인계하는 안, 둘째 숭실전문학교의 본관, 과학관, 운동장의 일부분(약 150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인계하는 안, 셋째는 평안남도 대동군 소재의 농장 약 33만 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인계안이었다.⁵⁵⁾

2. 합동경영론과 분리경영론의 대립

1937년 1월 중순 인계위원인 김동원의 교섭으로 서울의 유지인 방응모가 합동경영을 전제로 인수안을 제출하였다.⁵⁶⁾ 그러자 인계위원 간에 학

53) 『毎日申報』 1937년 1월 7일자.

54) 『毎日申報』 1936년 12월 14일자.

55) 『基督申報』 1937년 1월 31일자; 『毎日申報』 1937년 1월 7일자.

56) Hoon K. Lee(이훈구) to McCune, 1937년 3월 20일자,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I』, 173.

교인계경영의 방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계위원인 김동원, 고한규 등은 송실전문학교와 송실학교의 합동경영을 주장한 반면, 송실학교 교장 정두현은 송실전문학교와 송실학교의 분리경영을 주장하였다. 김동원, 고한규 등 송실전문학교 측은 서울의 방응모가 70만 원의 거금을 출자하여 송실전문학교와 송실학교를 합동경영하기를 바라며(송의여학교는 제외하고), 송실을 분리한다면 출자를 꺼리는 만큼 송실전문학교와 송실학교는 부즉불리(不即不離)의 원칙에 아래 합동경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⁷⁾

반면 송실학교 교장 정두현과 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은 더 완전하고 더 충실한 교육기관을 만들어 조선인 자제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송실학교도 송의여학교와 마찬가지로 분리경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송실학교는 독자적으로 분리경영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니 서울 방응모는 70만 원의 거금을 투자하는 이상,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송실전문학교만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⁸⁾ 송실학교 교장 정두현은 합동경영 운운은 교육의 완벽을 본의로 하는 논의가 아니므로 찬성할 수 없다는 부동의 신념을 피력하였다.

우리 세 사람은 모다 처음부터 학교는 분리하여 경영하는 것이 각 학교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조흔 결과를 나출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된 바이엇석고 또 새로히 경영자가 되시겟다는 분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교섭을 하여 오든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맞침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나는 오직 최초부터 나의 마튼바 우리 송실학교 하나만을 가장 완전하게 경영하여 나가는 것 이것을 나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두 학교는 다

57) 『每日申報』 1937년 1월 17일; 1937년 1월 26일자.

58) 『每日申報』 1937년 1월 17일; 1937년 1월 26일자.

른 두 분이 책임을 지고 마뎃스니 역시 그 분이 각자 그 학교를 완전하게 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엿스면 여기에서 비로소 세 학교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신조로 하고 있습니다.⁵⁹⁾

처음부터 후계경영 문제가 인계의 방법문제로 암초에 부딪친 것이었다. 후계경영 문제에 있어 분리경영안이 대두되자, 송실전문학교 학생들은 1937년 2월 2일 대강당에서 학생대회를 개최하고 송실의 합동경영안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관계 각 방면에 전달하였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분리인계를 주장하여 3교를 폐지에 직면케 한 인계교섭위원 중 배신자의 매성을 축함”, “지구욕망의 괴수인 이승길 등 일부분 자의 사욕적 송실분리운영을 철저히 배격하는 동시에 그 반역운영의 분쇄를 기함”, “3개교 일치존속 인계자의 출현을 간절히 요망함” 등을 피력하면서 합동경영을 주장하였다.⁶⁰⁾

이에 반해 송실학교 교직원들은 1937년 2월 4일 “崇專은 崇中을 自己活路의 方便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自校 更生의 善策을 講究하라”⁶¹⁾고 송전교수회의 성명을 비판하며 송실전문과 분리, 단독경영을 찬성한다는 결의를 발표했다. 송실학교 학생 50여 명도 2월 4일 오전 10시경 기도회를 갖고 결의문을 작성하여 정두현 교장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장로회 총회장 이승길(李承吉) 등 현직 목사들과 경영위원인 송실학교 교장 정두현은 송실학교의 단독경영을 지지했다.⁶²⁾

한편, 평양지역 사회도 합동경영과 분리경영을 놓고 시민들이 의견이

59) 『每日申報』 1937년 1월 27일자.

60) 『每日申報』 1937년 2월 4일자.

61) 『每日申報』 1937년 2월 4일자.

62) 『基督申報』 1937년 2월 10일자. 一. 本校는 學校의 充實과 自由로운 教育의 向上發展의 萬全을 期하기 爲하여 單獨經營을 絶對로 主張함. 一. 本校는 生徒의 風氣上 訓育上 從來의 經驗에 비추어 專門學校와 分離를 絶對로 主張함.

양분되어 논쟁이 전개되었다. 엄집리 금성의원장(金城醫院長) 정세운 씨 등 45명은 ‘송전, 송실, 송의 삼교인계경영촉진회’(三校引繼經營促進會)를 조직하고, 정세운, 김영필, 강병준, 채주현, 노진설 등 5인을 준비위원으로 선출하였다.⁶³⁾ 그러나 삼교후계촉진회는 정세운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활동하였으나 결국 한계에 부딪쳐 합동론을 지지하고 자진 해산하였다.⁶⁴⁾ 또한 평양지역의 유지 가운데 김철성 장로 등 수명은 ‘송전, 송실, 송의 3교유지방침연구회’(三校留支方針研究會)를 결성하여 3개교의 후계 방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송실학교의 후계경영안이 확실하니 합동론을 강요하지 말고, 송실전문을 맡아 경영할 사람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피력하여 분리경영을 지지하였다.⁶⁵⁾

그런데 이렇게 양측의 갈등이 지속된 이유는 분리경영과 합동경영의 주장이 각 학교의 존속여부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송실학교 측은 단독경영이 송실학교의 내실을 훨씬 더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기에 양교를 함께 운영할 독지가가 나타나는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⁶⁶⁾ 반면에 송실전문학교 측은 맥쿤의 사임으로 미국의 독지가로부터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아 두 학교의 통합운영을 선호하였다.⁶⁷⁾ 결국 합동경영과 분리경영을 지지하는 각 학교들과 평양지역 사회의 내분으로 말미암아 삼송학교 후계경영문제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63) 「毎日申報」 1937년 2월 4일자.

64) 「毎日申報」 1937년 2월 17일자.

65) 「毎日申報」 1937년 2월 20일자.

66) 송실학교 측의 입장은 「基督申報」 1937년 2월 17일자와 『송실대학교 100년사』, 499-501 참조.

67) 「基督申報」 1937년 2월 24일자;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118.

3. 한인보와 이춘섭의 인계경영안

솔타우를 중심으로 한 실행위원회는 애초부터 학교폐쇄와 교육사업 철수의 강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후계경영을 원하는 한국인들의 강력한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합동경영을 지지하던 실행위원회 측은 분리경영론이 대두되자, 이를 이유로 평안남도 당국에 학교폐교 수속을 단행하기로 하였다.⁶⁸⁾ 학교가 폐교될 것이라는 소식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평양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큰 파장이 일어났고, 송실전문학교 교장 모우리는 학교폐교는 낭설로 늦더라도 신입생을 모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⁶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양지역 유지들의 노력으로 삼교후계경영문제(三校後繼經營問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송실전문학교 교수인 양주동의 중개로 한인보(韓仁輔)가 70만원을 투자하여 송실전문학교와 송의여학교를 경영하고, 이춘섭(李春燮)이 30만원을 송실학교에 투자하기로 했던 것이었다.⁷⁰⁾ 양주동 교수와 김택은 1937년 2월 28일 오후 2시 교섭한 경위를 발표하였고, 3월 2일에 송실전문학교, 송실학교, 송의여학교 등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전말을 발표하였다.⁷¹⁾ 그리하여 1937년 3월 3일 오후 9시 경창리에 있는 라이너(Ralph O. Reiner, 羅道來) 선교사 집에서 ‘후계경영 청원안’이 작성되었다. 이 모임에는 송실전문 측 고한규, 김인준, 권연호, 송실학교 측 정두현, 송의여학교 측 김승섭 등 6인이 후계경영 청원에 대해 토의를 한 후, 오후 12시경에 조인을 마쳤다.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²⁾

68) 「基督申報」 1937년 2월 10일, 24일자; 안중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119.

69) 「基督申報」 1937년 2월 17일자.

70) 「基督申報」 1937년 3월 10일자.

71) 「每日申報」 1937년 3월 1일자.

(1) 송실중학교에 대해서는 이춘섭 씨가 30만원을 내어 경영함. (2) 송실전문학교와 송의여학교에 대해서는 한인보 씨가 오십만원을 내고 따로 송실전문학교의 경상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동시에 송실전문학교의 예정기지로 기림리에 있는 과수원 4700정보(시가 20만원)를 제공하여 도합 70만원의 일시회사와 경상비의 별도 부담. (3) 송실전문학교 건물을 명도할 때에 테이블, 의자, 피아노 1대, 건물 고정설치물 등을 제외한 모든 물건은 인계인의 소유로 함, (4) 소속 학교들의 자세한 재산목록

청원서의 협약사항은 송실전문학교와 송실학교의 경영은 분리경영을 원칙으로 하되 “인계 후의 학교경영은 종교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하기로 한다”⁷³⁾는 것이었다. 이 청원서는 실행위원회장 슐타우가 번역하여 실행위원회에 제출되어 동의를 얻었고, 8곳의 선교지부를 거쳐 해외선교부에 보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평양 사회는 모두 환영의 뜻을 표했고, 학교 측과 ‘삼교후계경영유지방침연구회’(三校後繼經營維持方針研究會)는 3월 5일 장춘관에서 한인보와 이춘섭을 위한 찬하회(讚賀會)를 성대히 개최하였다.⁷⁴⁾ 이 자리에서 한인보는 “나는 두 학교를 예수교적 전통을 존중하여 경영하겠으며 두 학교의 경영을 위해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고, 이춘섭 또한 “송실학교의 완전한 경영을 위해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사를 하였다.⁷⁵⁾

그러나 평양선교지부의 선교사들과 인계반대파 조선인들은 학교인계자의 자질에 관하여 의구심을 나타냈다. 인계반대파인 송실전문학교 부교장 이훈구는 한인보의 축척행위와 그가 가톨릭 신자임을 문제 삼았다.

72) 『每日申報』 1937년 3월 5일자.

73) 『基督申報』 1937년 3월 17일자.

74) 『每日申報』 1937년 3월 7일자.

75) 『每日申報』 1937년 3월 8일자.

그뿐만 아니라 한인보의 실질적 재산은 40만 원 정도로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한구가 한인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자, 인계경영을 원하는 학교관계자들에 의해 학교 밖으로 쫓겨났다. 그만큼 당시 조선인들의 학교인수에 대한 열정이 높았음을 보여준다.⁷⁶⁾ 조만식, 오윤선, 김동원 같은 평양지역의 유지들도 한인보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평양 사회의 후계경영에 대한 높은 열망에 따라 그의 인수를 지지했다. 그러나 청원서에 서명한 라이너는 송실학교를 제외하고 고등교육의 비효율성과 한인보의 도덕성을 들어 송실전문학교와 송의여학교의 폐쇄를 희망했다.⁷⁷⁾

V. 삼숭(三崇)의 폐교와 조선인들의 대응

1. 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의 학교폐교 결정

해외선교부는 1937년 3월 레버(Charles T. Leber)와 도즈(J. LeRoy Dodds)를 2차 위원단으로 파견하여 학교폐교와 교육철수 문제를 더 조사하도록 하였다.⁷⁸⁾ 3월 13일 두 위원이 평양을 방문하자, 송실전문학교, 송실학교, 송의여학교의 관계자들은 세 학교의 인계청원서를 빨리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⁷⁹⁾ 실행위원회는 이미 3월 3일에 해외선교부에

76)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120. 안종철은 “이훈구가 양주동이 평남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과 라이너와 교섭할 때도 일제 측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의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훈구의 주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일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모종의 개입을 하고 있음과 ‘인계위원회’ 측 인사들 내에서도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77) “Letter dated August 1, 1937 from Ralph O. Reiner,” 김홍수 엮음,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105인사건, 3.1운동, 신사참배 문제 편』(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395-398.

78) “Confidential Report of the Board’s Second Commission to Chosen,” 1937년 6월 14일자(RG 140-12-19), PCUSA, 1-2.

79) 『基督新報』 1937년 3월 24일자.

청원서를 전원합의로 보내고 있었던 터라, 조선인들은 해외선교부가 청원서를 통과시킬 것으로 믿고 있었다.⁸⁰⁾ 그러나 평양지역 사회의 기대와 달리 2차 위원단은 학교폐쇄와 교육철수 문제를 두고 선교사 간, 조선인들 간, 그리고 총독부의 태도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⁸¹⁾ 두 위원은 다수의 선교사들과 조선 기독교인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지만, 학교폐쇄도 반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또한 일본 당국은 신사참배를 통해 “제국의 정신”을 촉진하고, 조선인들은 학교를 통해 민족주의 교육을 고취하고 있어 학교폐쇄가 반일의식을 강화한다고 보았다.⁸²⁾

이런 상황 속에서 3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재령에서 개최된 실행위원회는 레버와 도즈가 참석한 가운데 삼승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결의를 하였다. 레버와 도즈는 그 내용을 해외선교부에 보고하면서 해외선교부가 학교인계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그 결정은 1937년 6월 24일에 개최되는 조선선교부 연례회의가 끝난 후,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가는 조선선교부 회원들과 토론을 거친 후 해외선교부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⁸³⁾ 2차 위원단의 보고서는 성명서로 채택되어 총독부 학무국, 평남지사, 3교인계후원회, 평양선교지부에 배포되었다. 그러나 실행위원회의 입장은 조속하고 철저한 학교폐쇄였다.⁸⁴⁾

그런데 2차 위원단이 해외선교부가 학교폐쇄 문제를 결정하도록 시간을 늦춘 것은 조선선교부의 부담을 줄이고, 조선인들의 강력한 압력 아래

80) 『基督新報』 1937년 3월 31일자.

81) “Confidential Report of the Board’s Second Commission to Chosen,” 1937년 6월 14일자(RG 140-12-19), PCUSA, 4;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121.

82) 위의 책, 122.

83) 위의 책, 123.

84) “Confidential Report of the Board’s Second Commission to Chosen,” 1937년 6월 14일(RG 140-12-19), PCUSA, 10-13.

진행되고 있는 학교인계경영안을 부결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인계자의 도덕성을 학교의 기독교적 특성을 유지하는 핵심”⁸⁵⁾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조선인들의 인계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와 2차 위원단이 표면적으로 학교인계안을 찬성해 온 것은 조선인들과 총독부의 강력한 압력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⁸⁶⁾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평양지역의 유지들과 삼성의 관계자들은 해외선교부에 학교인계에 대한 대답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평양지역 사회는 4월 초 ‘승전, 승중, 승의 3교인계후원회’(실행위원장 朴經錫)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3교인계후원회’는 해외선교부에 4월 20일까지 후계청원서에 대해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5월 초 2차 위원단인 레버와 도즈, 그리고 해외선교부에 신입생 모집 여부와 후계청원서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재차 발송했다.⁸⁷⁾ 이어 송실전문학교 교수회, 송실학교와 승의여학교 직원들도 실행위원장 솔타우와 해외선교부에 청원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실행위원장 솔타우는 후계문제와 신입생 모집에 관하여 6월 20일 이내로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⁸⁸⁾ 그러나 조선인들은 선교사들과 해외선교부의 처사에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인들은 학교경영권을 인계할 의사가 있다면, 신입생 모집에 적극 나설 것을 학교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행위원회는 해외선교부의 후계경영에 대한 최종결정이 없이는 신입생 모집을 허락하지 않았다.⁸⁹⁾

85) “Confidential Report of the Board’s Second Commission to Chosen,” 1937년 6월 14일(RG 140-12-19), PCUSA, 14-15;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123.

86) 위의 책, 124.

87) 『基督申報』 1937년 5월 5일자; 1937년 5월 19일자.

88) 송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송실편』, 505; 『每日申報』, 1937년 5월 18일자.

89) 『基督申報』 1937년 4월 7일자.

이는 실행위원회가 처음부터 학교후계경영에 대해 부정적이었음을 보여 준다.⁹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37년 6월 말 해외선교부는 실행위원회에 답신을 보내 학교폐쇄와 교육철수 문제의 조사를 위임받은 외사분과위원회(Foreign Committee)가 이 문제를 조사한 후, 9월에 열리는 해외선교부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왔다.⁹¹⁾ 해외선교부의 답신이 온 직후, 조선선교부는 6월 24일부터 1주일간 평양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대구의 계성, 신명학교의 경영을 중단하고 학교를 폐교한다는 결의를 하였다.⁹²⁾ 이 결정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조선인들은 조선선교부에 학교인계안이 다시 통과되도록 압력을 넣었으나 솔타우는 교육인계문제는 해외선교부의 소관으로 선교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였다.⁹³⁾ 이런 가운데 해외선교부는 9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평양의 삼교의 인계경영안을 거부하고 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솔타우의 후임인 실행위원장 로즈에게 통보하였다.

해외선교부는 현재 어느 학교의 재산이든지 팔거나 양도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교육국 특별위원회(외사분과위원회)는 10월에 다시 통지하려고 한다. 비상경비는 재정위원회의 보고를 기다리어 전보하겠다.⁹⁴⁾

이 사실은 곧바로 선교부에 통고하였다. 실행위원장 로즈는 이 사실을

90) 안중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1931-1948)』, 124.

91) 「基督申報」 1937년 7월 7일자.

92)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506; 「東亞日報」, 1937년 6월 30일자.

93) 「基督申報」 1937년 7월 7일자.

94)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507에서 재인용; 「東亞日報」 1937년 10월 2일자.

‘3교인계후원회’ 실행위원장 박경석에게 전달하였다. 이 서신에서 로즈는 해외선교부의 결정에 따라 1937년 10월 말경에 폐교수속을 취하여 1938년 3월 말까지 완전히 폐교할 것이라고 했다.⁹⁵⁾

2. 학교폐교에 대한 조선인들의 대응

총독부 학무국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폐교하지 못하도록 1937년 7월 22일부터 사립학교의 폐교를 신고주의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⁹⁶⁾ 따라서 조선인들은 선교사들이 학교폐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조치를 환영하였다.⁹⁷⁾ 조선선교부가 학교폐교의 소식을 알리자, 평양지역 사회의 여론은 선교부측으로부터 교명만이라도 이어받아 세 학교를 살리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평양 사회의 대표적 지도자인 조만식은 “역사 깊은 세 학교를 구명이나 하여 보자면 선교사측에 학교 간판이라도 주기를 요구하여 독지가 또는 사업가가 나서서 이 세 학교를 살려가야 할 것이다”⁹⁸⁾라고 말했다. 숭실전문학교 교수인 채필근과 우호익도 학교 명의만이라도 선교부 측으로부터 얻어 독지가의 출연으로 학교를 살려보자고 하였다.⁹⁹⁾ 이들은 모두 학교 명의의 차대와 독지가의 출현을 학교의 구급책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숭실전문학교와 승의여학교를 인계청원한 한인보는 한때 인계포기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학교관계자들의 설득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기 혼자 힘으로 두 학교를 모두 경영할 수 없으니

95) 위의 책, 507-508; 『東亞日報』 1937년 10월 3일자.

96) 『東亞日報』 1937년 7월 22일자.

97) “Minutes of the Foreign Department,” 1937년 8월 31일자, 김홍수 엮음,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105인사건, 3.1운동, 신사참배 문제 편』, 403.

98)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508; 『東亞日報』 1937년 10월 3일자.

99) 위의 책, 508; 『東亞日報』 1937년 10월 3일자.

기부토지 315,000평과 과수원 1천 평을 합하여 20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승의여학교만을 인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춘섭은 30만 원의 출자로 숭실학교를 인계하겠다고 언급하였다.¹⁰⁰⁾ 그러므로 숭실학교와 승의학교는 교명만이라도 인수가 가능하였으나, 숭실전문학교는 독지가가 나타나지 않는 한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숭실전문학교 교우회는 숭실학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승전 존속기성회’를 조직하여 독지가를 구하고, 직간접의 원조를 얻기 위하여 경향 각지의 인사 119명의 찬성원(贊成員)과 5인의 지방실행위원을 선정하여 승전 존속운동을 펼쳤다.¹⁰¹⁾ 그러나 실행위원장 로즈는 10월 25일 평양에 내려와 평양선교교회 부에 참석하여 폐교절차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¹⁰²⁾

1. 평양 숭실, 승의, 승전 세 학교의 폐교수속은 이 달 30일까지 완료하고 서류는 평양에서 작성하여 평남 당국에 제출하기로 함.
2. 재학생 문제는 명년 3월까지 완전히 폐교하므로 그 이상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나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좋은 안을 제시하면 고려하여 보기로 한다.
3. 학교 교명은 역시 해외선교부의 방침에 의하여 양여의 허락을 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은 폐교원을 10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이며, 학교 교명의 양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숭실교우회는 실행위원장 로즈에게 교명의 인계와 폐교의 경우 재학생의 타교로 전학을 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로즈는 다음 날 숭실교우회장 우호익에

100) 『每日申報』 1937년 7월 7일자; 1937년 10월 4일자.

101)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509; 『東亞日報』 1937년 10월 10일; 1937년 10월 24일자.

102) 위의 책, 510-511에서 채인용; 『東亞日報』 1937년 10월 27일자.

게 청원서의 내용을 동정은 하나 해외선교부의 방침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⁰³⁾ 이로써 교명의 인계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숭실학교와 숭의여학교는 10월 29일 평남 학무과에 폐교원이 제출되었고, 숭실전문학교는 11월 1일 평양부 학무계에 제출되었다. 폐교원은 숭실학교는 블레어, 숭의여학교는 라이너, 숭실전문학교는 밀러(E. H. Miller) 명의로 작성되었다.¹⁰⁴⁾

한편, 총독부는 해외선교부가 학교폐교원을 제출하였으나 허가를 내어 주지 않았다. 그러다 총독부는 조선선교부의 평양지역 3개교 폐교원을 두 개의 건물 중 한 개 반을 2년 동안 대여해 준다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행위원회는 1938년 2월 1일 이 조건을 해외선교부에 전보로 보고하였고, 해외선교부는 2월 21일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¹⁰⁵⁾ 그러자 폐교 직전 광산가 이종만이 숭실전문학교 부교장 이훈구의 교섭을 통해 총독부 학무계에 숭실전문학교의 인수를 요청했다. 이종만은 120만원의 기금으로 재단법인 대동학원을 설립하고, 1938년 7월 1일 숭실전문학교를 인수하여 대동공업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했다.¹⁰⁶⁾ 한편 총독부는 숭실학교는 평양 제3 중학교로 명의를 변경하였고, 숭의여학교는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의 일부로 흡수하여 총독부의 교육체계에 편입하였다. 이로써 평양의 유서 깊은 기독교 학교인 삼숭(三崇)학교는 1938년 3월 3일 최후의 졸업식을 끝으로 역사의 매듭을 지었다.

VI. 나가는 말

193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한국기독교계의

103) 위의 책, 511.

104) 위의 책, 511.

105) 「東亞日報」 1938년 2월 24일자.

106) 「東亞日報」 1938년 6월 1일자; 1938년 6월 3일자.

큰 시련이었다. 초기에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계 학교들은 신사참배에 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신사비종교론’을 주장하며 신사참배를 애국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은 물론 기독교계에 강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한 선교사 가운데서도 ‘신사종교론’과 ‘신사비종교론’으로 나뉘어져 분열하였고, 미션스쿨의 학교폐쇄문제를 놓고 ‘신사종교론’을 주장하는 다수파와 ‘신사비종교론’을 지지하는 ‘소수파’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사종교론’을 지지하는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평양의 삼송학교는 미국 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의 결정에 따라 결국 1938년 3월 학교를 폐교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와 선교사들과 조선인들의 신사참배 거부 과정, 그리고 북장로교 조선선교부의 미션스쿨의 폐쇄와 교육사업 철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견해와 목소리, 그리고 관점의 차이들이 다층적으로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선교사들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수파인 평양선교지부의 선교사와 실행위원회의 위원들은 매우 강경하게 신사참배에 저항하여 학교를 폐쇄하고자 하였다. 반면 모우리와 같이 교육을 전담하는 선교지부의 선교사들과 서울의 언더우드는 신사참배에 어느 정도 ‘종교성’이 있으나 총독부의 ‘신사비종교론’을 수용하여 신사참배를 애국적 활동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미션스쿨의 폐쇄와 교육사업의 철수를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선교사들 사이에 신사참배와 학교폐쇄 문제를 두고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였다.

둘째로 조선선교부와 미국 해외선교부가 미션스쿨의 폐쇄를 결정하고 교육사업에서 철수를 결의하자, 선교사들과 평양지역의 조선인들 사이에 갈등이 조성되었다. 특히 송실재단의 설립자인 마췌이 학교폐쇄와 교육

사업 철수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평양의 삼송학교 관계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사참배를 용인함은 물론 학교의 경영권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선교부는 1936년 7월에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교육철수 권고안을 통과시켜 학교폐쇄와 교육사업 철수는 물론 조선인에게 학교의 양도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셋째로 삼송의 후계경영문제를 둘러싸고 학교관계자들과 조선인들 사이에 분열과 대립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인들의 압력으로 실행위원회가 표면적으로 후계경영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합동경영론을 주장하는 송실전문학교 측과 분리경영을 주장하는 송실학교 측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평양지역 사회에서도 합동경영을 지지하는 파와 분리경영을 지지하는 파로 나뉘기도 하였다. 합동경영론과 분리경영론의 분열은 송실전문학교와 송실학교의 존속과 깊은 관련된 문제로 후계경영문제를 더욱더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두 가지의 결과를 낳았다. 첫째는 기독교계의 커다란 분열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즉, 신사참배 강요를 놓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 간, 선교사와 조선인, 그리고 조선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계 학교를 식민지교육체제로 편입시키고자 했던 일제의 종교정책에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즉, 신사참배를 통하여 식민지교육정책을 관철하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적극적 항거를 못하고 교육선교 포기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둘째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한 미국 장로교계의 학교폐쇄와 교육사업 철수는 식민지 조선에서 총독부의 교육을 상대화했던 교육공간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형 근대화가 조선에서 일시적으로 약화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평양 삼승학교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1930년대 일제의 군국주의 정책에 항거한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일제의 종교탄압에 대한 단순한 항의 표시였지만, 신사참배를 통해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예속화시키고자 하는 일제의 종교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점에서 민족운동적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태, 『식민권력과 종교』.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2.
- 김승태 편역, 『일제 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1910-1945)』.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김홍수 엮음,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105인사건, 3.1운동, 신사참배 문제 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자료총서 제 32집.
-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 - 1. 평양숭실 편』.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국, 1997.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평양숭실대학 역사자료집 III』.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
-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 이성진,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 이치만, “1930년대 이후 대한 미국선교사의 교육사업 철수에 관한 소고: 미북장로회 조선선교부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39집, 267-295.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서울: 기독교문사, 1991.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基督新報」 1936년 1월 22일자; 2월 26일자; 1937년 2월 4일자; 2월 10일자; 1937년 1월 31일자; 2월 10일자; 2월 17일자; 2월 24일자; 3월 10일자; 3월 17일자; 3월 24일자; 3월 31일자; 4월 7일자; 5월 5일자; 5월 19일자; 7월 7일자.
- 「京城日報」, 1935년 12월 9일자.
- 「東亞日報」 1935년 11월 24일자; 1936년 3월 7일자; 1937년 6월 30일자; 7월 22일자; 10월 1일자; 10월 2일자; 10월 3일자; 10월 10일자; 10월 24일자; 10월 27일자; 11월 2일자; 1938년 2월 24일자; 6월 1일자.
- 「每日申報」 1935년 12월 10일자; 1936년 12월 12일자; 12월 13일자; 12월 14일자; 12월 16일자; 1937년 1월 7일자; 1월 17일자; 1월 26일자; 1월 27일자; 2월 4일자; 2월 17일자; 2월 20일자; 3월 1일자; 3월 5일자; 3월 7일자; 3월 8일자; 5

월 18일자; 7월 7일자; 10월 4일자; 10월 10일자; 10월 24일자.

「朝鮮中央日報」 1936년 2월 19일자; 2월 22일자; 2월 24일자; 3월 2일자.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訓令 第 14號, 1935년 4월 16일자.

”Board Actions Regarding Withdrawal from General Education in Chosen,”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7-8

“Board Action of September 21, 193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149-151.

“Confidential Report of the Board’s Second Commission to Chosen,” 1937년 6월 14일(RG 140-12-19), PCUSA,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16일 (395. 1163/39), 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158.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16일 (395. 1163/38)의 첨부물 “Educayional Policy,”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242-243.

Educational Policy of the Chose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As decided July, 193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신사참배영문자료집 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Letter from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28일자.

Letter from McAfee to Soltau, 1936년 4월 1일자.

Letter from McCune to Cleand B. McAfee, 1935년 12월 20일자.

Letter from McCune to Yasutake, 1936년 1월 18일자.

Letter from Ralph O. Reiner, 1937년 8월 1일자.

Letter from Holdcroft to C. B. McAfee, 1935년 7월 4일자; 1936년 3월 1일자.

Letter from Holdcroft to Ugaki, 1935년 11월 25일자.

Letter from Hoon K. Lee(이훈구) to McCune, 1937년 3월 20일자.

Letter from Yasutake to Holdcroft, 1935년 12월 2일자.

“Minutes of the Foreign Department,” 1937년 8월 31일자, 김홍수 엮음,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105인사건, 3.1운동, 신사참배 문제 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자료총서 제 32집.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presbyterian Mission, Seoul” 1935년 12월, 9-13일자.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37-38.

“Report of the Board’s Commission to Chosen Regarding the Shrine Question”,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신사참배 영문자료집 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141-148.

“Statement Concerning Our Attitude toward patriotic Ceremonies, Resolutions Passed by Chosen Mission,” July 1935.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32.

논문투고일: 2024년 02월 29일

심사개시일: 2024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15일

• 국 문 초 록 •

지금까지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저술들과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신사참배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상당 부분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평양의 삼승학교, 즉, 송실전문학교, 송실학교, 승의여학교의 신사참배 거부문제와 교육사업 철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삼승학교의 폐교과정에서 나타난 선교사들과 조선인들의 입장의 차이, 학교인계경영과 관련된 조선인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 2장에서 먼저 일제 신사참배 강요와 조선선교부의 초기 대응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제 3장에서는 신사참배 문제를 둘러싼 선교사와 조선인과의 입장의 차이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셋째로는 삼승의 후계경영 문제의 대두와 조선인 사이의 긴장과 갈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로 삼승폐교 과정에서 미국 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역할과 조선인들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주제어: 신사참배, 학교폐교, 송실대학, 조선선교부, 조선총독부
